

Appendix 3: images from *Operation Typhoon*

그림책

# 태풍작전

그림, 글 최 역

조선출판물교류협회  
주체92(2003)년

나오는 사람들



마진욱



공작조원들



진정우



유미



양문도



유치환



젠.스퍼노스



존.록케



하종락

히, 대단하군. 현대 동역관 녀석은  
언제 저런 유명짜한 아가씨와  
다 사귀었을거요?

자네도  
부러운가?



말할게 있나오.  
방첩대장님두 걸을  
흘러져 흥쳐 보는 이인인데.



제군! 오늘부터 우와는 2차대전  
영웅인 록케 대좌의 자취를 보는  
행운을 차게 되었소.



1원대 두 날 거들며 표지 않더군  
그 녀자에게 흠뻑 반한 모양이요.



여보게. 그 녀자가  
진정우연에 진짜  
반한 것 같던가?

반하지 않으면  
안날 물어  
있겠소?



그 제집 장알 절이 없군.  
그런 수상쩍은 놈을 따라  
다니다니.

수상쩍다니?



그래.  
그자는  
되가 어수  
룩한 놀이야



자네두 새 솜씨를  
잘 알지?

응! 이리처럼  
물구 늘어지는  
재간 말이요?



그사람 뒤에  
누가 있는 줄  
알거나 하고  
덜비오?



내륙감이  
틀원적은  
여져 없어.

팬치 물고  
늘어졌다가  
몽둥이에  
사동뼈나  
흔지르지  
마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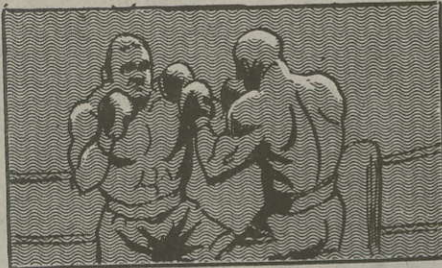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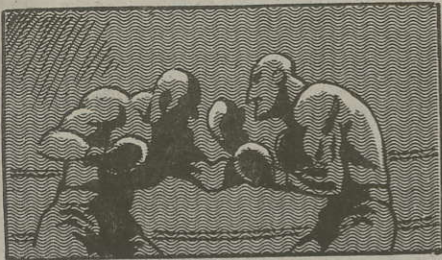


이제 보게.  
내 그놈의  
갑대기를  
벗겨  
놓는 걸



알판 그래야  
앤 반로  
바위차가지.





대환한  
송씨군요.

아! 하느님의  
사도!

?...  
육사가?

어떻게 여기엔?...  
나를 위해 기도하려  
오게 아니요?

대환님의 명복을  
빌어 보지요.

으하하하! 1월 18  
《최후심판의 날》에  
지옥구렁은 하자  
않겠구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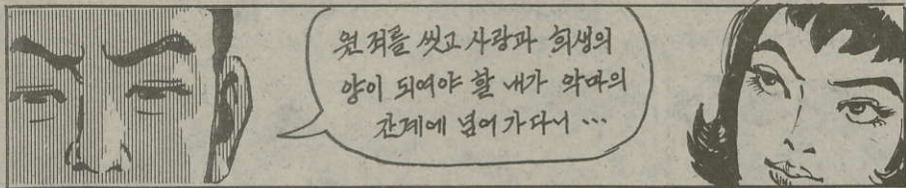


그렇소. 나 지금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죽음만을 기다리는  
심정ियो.

상심알아요.  
인간은 죄와  
재한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원 죄를 지고 나온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더  
피로한거요.



원 죄를 씻고 사랑과 희생의  
양이 되어야 할 내가 악마의  
잔재에 넘어가다니 ...



알리 알리 과마사 뽕다리.  
(죽어. 죽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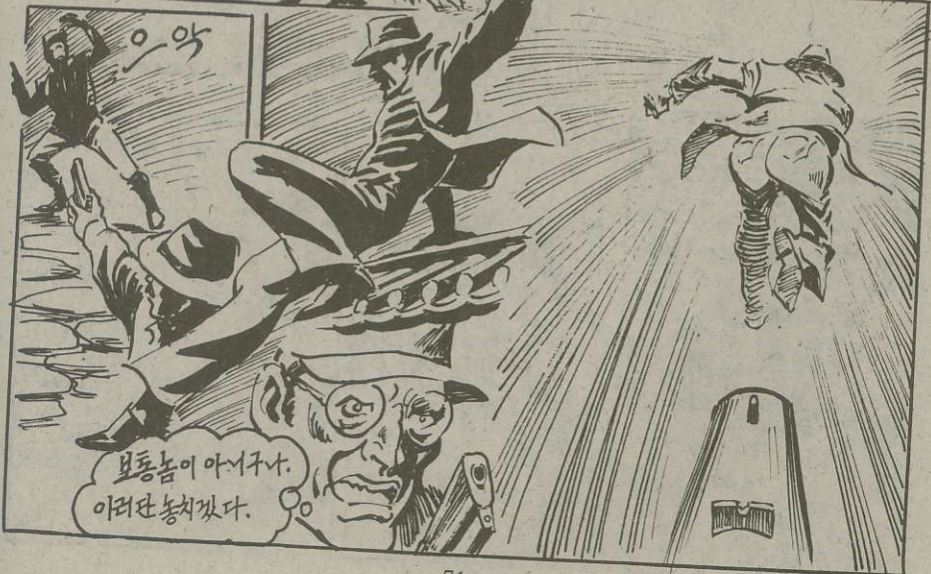


아이장.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셨군요.

용서하십시오. 두분이  
너무 추심에 잘했기에 ...

혹시 내가 드물  
일이라도 ... 물론  
하느님은 아시지만 ...

호호. 당신은 정말 귀세주  
같군요. 늘 우릴 도우려고  
하시 말이에요.







전정우는 처리해야 한다. ... 그렇지! 폭로제선에 보세자. 거긴 무덤이나 같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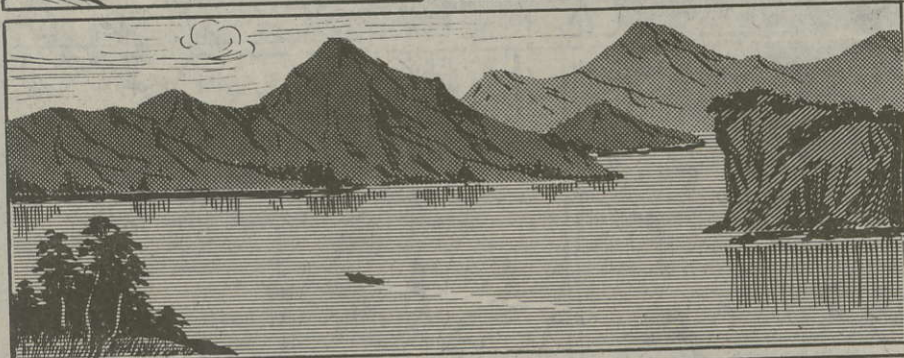




자! 이제 모든게 다 백지야!  
아무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세.



후-감모장... 물벼우 같은놈!  
벌써 어찌를 띠겠지. 저 녀석은  
그것투 모르자...



젠장! 물새 한마리 보이지 않는군.



대화신! 이렇게 무효한 시간을  
대려맞는 녀석과 보내는것이 더  
유쾌하지 않을까요?



네게브사악의 사해 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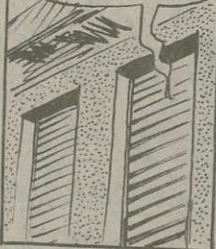
전쟁중에 새들이 모두 달아났습쇼.

누가 그 따위의 소릴 했소?

방첩대가 사살했다는 정제불명의 신사가 마약 밀수입자라더군요.

자문 방첩대장은 수사를 심화시켜 거래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들은 대차검의 부하들이 그사건에 개입되었다고 추측한다더군요.



이건 정말 도박뉴스강이예요



혹케는 뜻밖의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것이 세상에 공개 된다면 그의 명예는 땅바닥에 곤두박치게 된다.

물론 그기가 전사모도판제 법에 의해 부결되겠지만 그자체가 펜하곤의 말썽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심각한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데에 《정예》를 자랑하는 특공대 까지 마약에 의지한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곤의 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무라  
에이이찌  
올시다.

윙케톤동차는 당신을  
기아렸다고 합니다.



젊은이! 동역은  
필요없소. 난  
영어를 알고  
있으니까.



중좌령! 여기 당신께  
조선인들을 일부로 신뢰  
하지 말아야 한다는걸  
여쭙고 싶군요.

오. 장  
당신들은 머리  
때배의 싹맛을  
보았지.



기무라씨! 우리는 당신의  
방조를 받아야 할 우리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소.



저는 당신들의 사명을  
방조하게 되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간주합니다.

대안히 좋소!  
자! 1점 야전 표시요.



우리는 이전 당신네 제국  
공군이 이용하던 시설을  
하사를 복구하고 있소.

아. 사이프 증상의  
항공기들이 있던  
비밀기지군요.





이 강령에는 민족적량심을 가진 사람은 자살가이전, 지사인이전, 종교인이전 누구를 막론하고 철을 합쳐야 한다는 사상이 제시되어 있소.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분은 이처럼 밝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분이요.



우리 민족은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뭉쳐 비제정략자들을 몰아내고 통일강국을 건설해야 하오.



당신이 살린 나무구만, 어젠 뿌리가 내렸소.



대지에 툄툄히 뿌리 박고 태양의 따듯한 빛을 받으면 그 어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을거요.







유이는 자기만을 의심  
했다. 오래전부터  
진정우의 사랑됨을  
알고 있는 그녀는  
그러던 신앙심 높고  
소심한 청년이 위험한  
정찰행위에 가담  
하리라 코는  
상상도 할수  
없었다.



그는 필수사건과  
관련된 진정우를  
의심하지 했지만  
그것은 붉은 정찰  
에 리용당할수  
있는 요소로만  
판단하고 비밀리  
에 감사관을  
해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직접  
적인 정찰행위의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이제는 그한테  
희살을 점중해야 한다



진정우를 미끼로 하여 궤이 감입한 정찰망을  
드러낸다면 공작출판물에만 알려졌던  
그의 이름이 비밀전쟁의 세계에도 자자해  
질 것이다.



기무라의 시공도면이 촬영된 흔적이  
발견될 시급히 대책을 바랄.  
《델리 라흐》



그들은 자신의  
취약점을 반드시  
찾아별건이다.

너무 축란하는게 아시오?  
그의 문점은 군사작전도가  
아니라 전설전투업자들의  
사공도면이란 말이오!



그따위 문점은  
작전의 운명을  
좌우할수 없소!

물론 옳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을 예견해야 합니다.



단 한번의 실수가 파멸을  
몰아올수 있습니다.

그해 당선의 요주는  
뭐오?



책임을 로할때가  
아깝습니다. 이젠  
하늘이 내린  
명령입니다.



저수지 제방을 터뜨려  
물을 논벌로 뿜어야 합니다.

당선 성상한게 아시오?  
그걸 폭파하면 많은  
지역이 물에...



우린 자신의  
운명부러  
먼저 생각  
해야 합니다.

안 그따위 장난은  
책임질수 없소!

하늘의 명령?  
늘라리 약아  
같으니...  
그러즉 뭐  
하느님의  
4도라기?

«아메리카의 동맹군  
정복자들!» 이런 제목의  
툼기사와 함께 사진을 받쳐  
편집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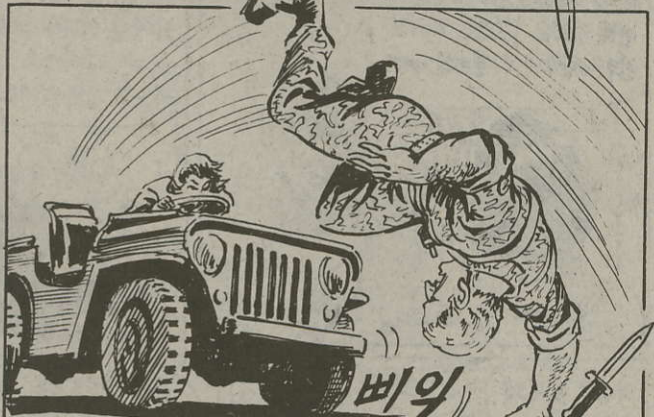
그라면 한갓  
이름 없는 직업  
하사관이다.  
당신의 명성이  
세상에 자자  
해 질거예요.

물론 고향의  
부인도 기뻐  
할거구.



닥쳐라!  
네년을 당장!





흥! 골통전이군.





대위! 이 주먹  
맛을 봐야  
알겠소?



어째서 계약을  
리해하지 않소?

성내지 마오. 폴!  
피스톤이 살해당했소.



구실은 필요없소.  
나에게 현물이요구  
된단 말이오.

조금만 참소.  
머칠후면  
도착할거요.



머질이 뭐요?  
우린 당장 출동  
한단 말이오!

출동?!  
벌써 작전이  
시작됐소?



알게 뭐요!  
어쨌든 발령이  
내렸소.





대좌님! 당신은  
오산하고 있습니다.



반관자들은 붉은 정찰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젠장! 이전 당신의 참견에  
전혀러가 나오. 썩 사라지시오.  
목사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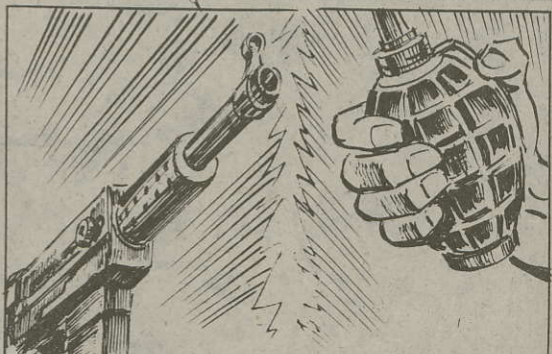
성내지 마시오. 대좌님!  
인질들을 구출한다는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붉은정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인을 봐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랍치의 진짜 목적이니까.



당성과 작전의 운영이  
지금 키우라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 음반지? 마님네 카르민  
청보석 음반지가...



유...유미야!...제 애비를  
죽이다니...내...내가 바로 너를  
불속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다러님. 눈을 뜨시우.  
에이구~세상에 이런 일두  
그렇게두 찾던 딸이...



유미...유미야  
저기 있슈다.





평숙을 뒤쳐서라도  
시체를 찾아내라!



시체들 중에 수문지기로 추측되는  
자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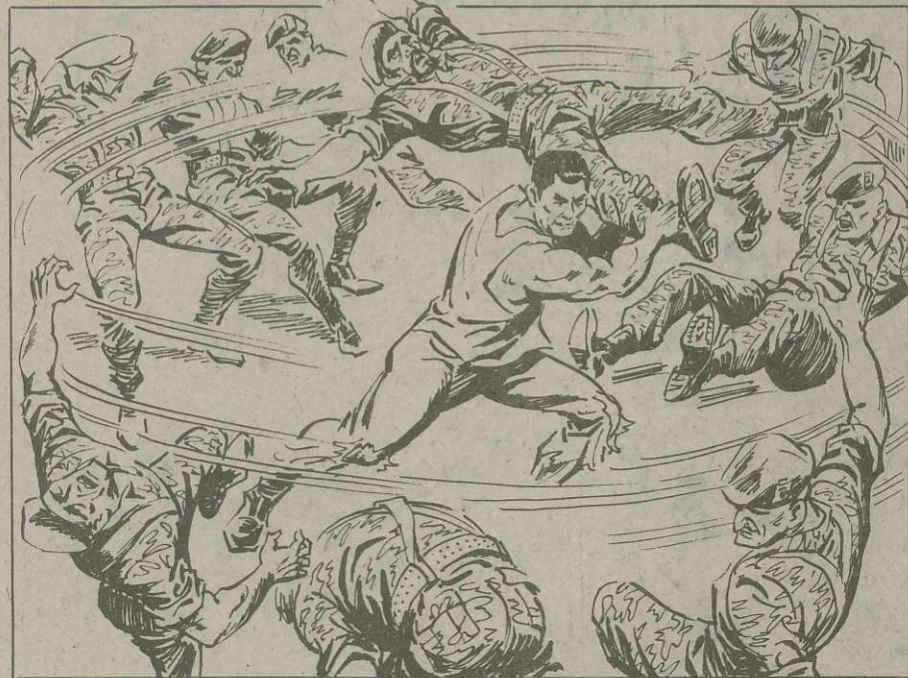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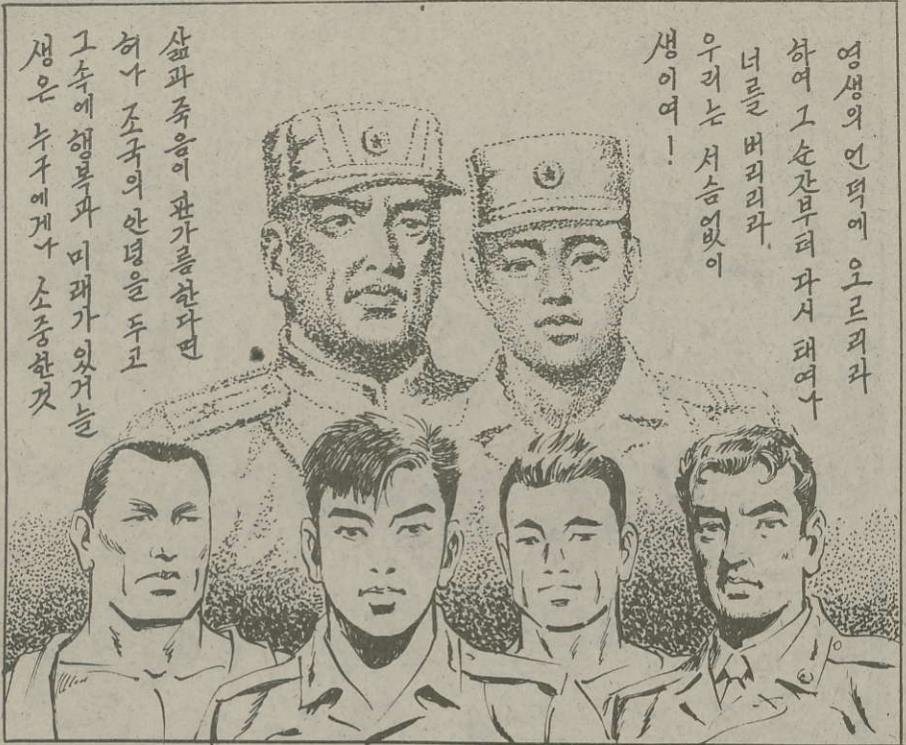
음..... 빠져  
나갔구나.  
그 자들은 별장에  
나하날 겁니다.



저기 봐나.  
왜농사장이 별장을  
짓고 그 밑에  
지하수문을  
만들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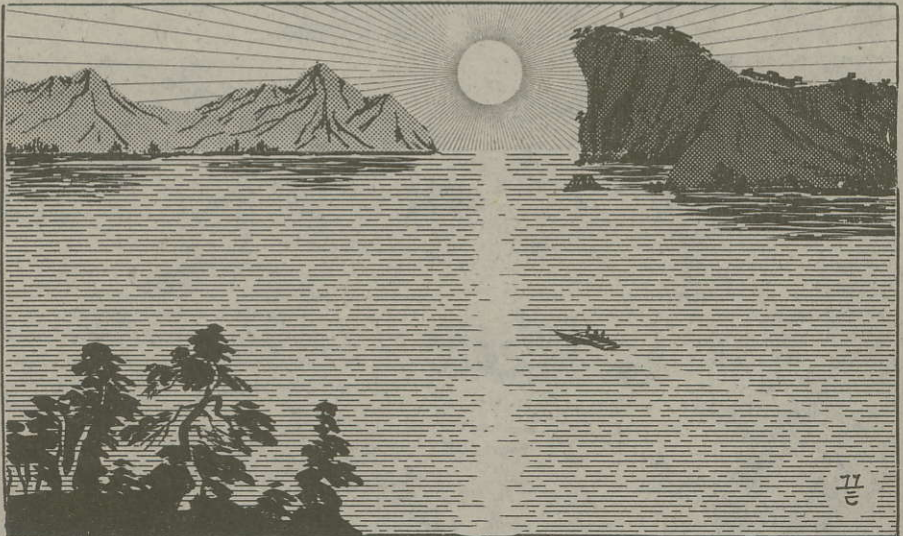






영생의 언덕에 오르리라  
 하여 그 손잡부라 파사 태여나  
 너를 버리라  
 우리는 서슴없이  
 생이여!

살과 죽음이 판가름한다면  
 허나 조국의 안일을 두고  
 그 속해 해복과 미패가 있거늘  
 생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



끝